



**< 11월 3주 주요 경제 동향 >**

- ◆ 美인터넷 기업, 加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우려 표명
- ◆ 노바스코샤주 경제·교육·문화 사절단 방한 예정 (11.19~20일)
- ◆ 캐나다 9월 개인 파산 신청 건 전년동기비 20% 증가
- ◆ CPPIB,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 자산 구조조정

**1. 美인터넷 기업, 加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우려 표명**

- 트루도 총리가 지난 총선 선거 공약으로 Amazon, Google 및 Facebook 등 미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, 동 미국 기업들과 상공회의소가 11.15일 트럼프 행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함.
- 미국 외교부, 재무부, 상무부 장관과 USTR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에는 캐나다 디지털세 제도가 WTO, NAFTA(USMCA)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며, 미국 정부가 캐나다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
- 한편, 연방정부가 2020.4.1.일부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인터넷 회사들은 캐나다에서 광고 및 개인정보 판매 등으로 확보한 매출액에 대해 3% 세금을 지불해야 함.

[출처 : Globe and Mail(11.15)]

**2. 노바스코샤주 경제·교육·문화 사절단 방한 예정**

- 노바스코샤주 경제·교육·문화 사절단이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치 목적으로 11.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. (Stephen McNeil 노바스코샤 주수상이 사절단 대표)

[출처 : 노바스코샤 주정부 보도자료(11.7)]

### 3. 캐나다 9월 개인 파산 신청 건 전년동기비 20% 증가

- 9월 캐나다 개인 파산 신청은 1.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% 증가하였고, 최근 1년간 개인 파산 신청도 13.3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.5% 증가함.
- 한편, 파산 신청은 온타리오, 앨버타 및 뉴펀들랜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 동 기간 가구당 평균 저축률(총 소득 대비 저축 비중)은 1.7%로 지난 60년 최저 수준으로 하락
-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, 캐나다 기준금리가 2018년 0.75% 포인트 인상되어 가계 부채 비용 부담이 지속 가중되어 왔다고 분석함.

[출처 : Globe and Mail(11.8)]

### 4. CPPIB,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 자산 구조조정

- CPPIB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까지 보유중인 자금 3분의1을 신흥시장에 투자 예정이며, 해당 투자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유력하다고 언급함.
- 실제로 CPPIB의 재생에너지 누적투자 금액이 2016년 3천만 캐불에서 2019.6월 30억 캐불 규모로 확대되는 등 투자재원 상당 부분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
- 한편, CPPIB는 최근 Pattern Energy社(2019.11월, 26.3억), NextEra Energy Partners(2018.6월, 12.7억) 및 Enbridge社(2018.5월, 17.5억 캐불)를 인수한 반면, 토론토증권거래소(TMX, 2019.3분기, 4.7억) 등 자산을 매각함.

[출처 : CPPIB 연간보고서, Globe and Mail(11.4, 15)]